

구충곤 화순군수 ‘산림환경대상’ 수상

산림환경 보전, 경제·공익 기능 증진 이바지 공로
미래성장산업 체계 갖춰 ‘제1 산림 지자체’ 우뚝

구충곤 화순군수가 산림환경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을 받았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구충곤 군수는 전남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시상식에서 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은 산림의 환경기능 향상에 공헌한 인물을 발굴해 산림환경 보전과 공익적 기능 향상과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입법·자치·연구·교육·정책·행정·단체·임업 등 8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한다.

구충곤 군수는 화순군 전체면적의 73.2%를 차지하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자연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하면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발전시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자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구 군수는 민선 6기부터 조림사업 등을 통한 산림환경 보전과 산림자원 확충, 경제림 조성과 소득사업을 통한 산림산업 육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산림복지 확대와 관광 자원화 활성화, 녹색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힘써 왔다.

또 명품 숲 조성은 물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힐링 화순’ 브랜드 창출에도 주력했다.

‘만연산 치유의 숲’ 조성과 운영이 대표적이다.

화순군은 화순읍 동구리(120ha) 만연산 일대에 118억원을 투입해 치유의 숲센터, 오감연결길, 치유 숲길, 숲속체험장을 조성해 치유·휴양 등 생애주기별 산림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구충곤 화순군수가 지난 18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화순군 제공

2014년 19만명이 만연산 치유의 숲을 찾았고 지난해에는 29만명, 2019년(11월 말 기준)에도 24만명이 방문했다. 6년 동안 약 160만명의 탐방객이 다녀갔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오감연결길, 산림치유프로그램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온난화와 미세먼

지 발생 등 기후와 환경 여건의 변화로 산림의 중요성, 공익적·경제적 활용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산림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휴양·치유, 관광, 바이오 에너지 생산 등 미래 산림 생태관리 체계를 확고히 해 전국 제1의 산림 지자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 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
요가·사진·영어 등 61개 강좌

여수시는 19일 “내년 1학기 평생학습관 수강생 1천500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설 강좌는 총 61개로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해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 장소는 웅천동 이순신도서관이며 프로그램은 크게 주중 오전·오후·야간과 주말 오전·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중 오전에는 ▲명상요가 ▲발레 ▲한문서예 ▲건강과 약초 ▲통합공예 ▲문인화 ▲재봉틀 ▲캘리그래피 등을 배울 수 있다.

주중 오후는 ▲DSLR 사진교실 ▲미술 이야기 ▲생활자수 ▲천연화장품 ▲의류리폼 ▲어린이 글쓰기 등이 열리고 야간에는 ▲여행영어 ▲생활역학 스마트폰 활용 ▲문예창작교실 등을 만날 수 있다.

주말 오전에는 ▲명상요가 ▲어린이 책놀이 ▲어린이 드로잉&채색 ▲천연화장품을 오후에는 ▲어린이 글쓰기교실 ▲명상요가 ▲어린이 경제교실 ▲어린이 연극교실이 문을 연다.

모집 인원은 과목별 25명이고 여수시 OK통합예약(ok.yeosu.go.kr/ok)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평생학습관(061-659-4719)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진선 기자



전남지역 22개 시장·군수는 최근 장성에서 민선 7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례회를 열고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담양군 제공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해야”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서 정례회 갖고 촉구

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 민선 7기 제7차 정례회가 최근 장성 백양관광호텔에서 열렸다.

민선 7기 들어 일곱 번째를 맞은 이번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최형식 담양군수를 포함, 전남 22개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전남 상생 발전에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교통

약자 이용 특별교통수단 확대 지원 ▲전남 시·군 간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당면 현안 과제들에 대한 시·군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재원을 독점해 지방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현재 기초지방정부는 지방소멸이라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장인 최형식 담양군수는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치지 말고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앞으로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원으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군 내년부터 ‘1천원 버스’ 전면 시행

구례여객운수와 협약...교통약자 부담↓ 복지 불균형 최소화

구례군이 군민 교통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원 택시 확대 운영에 이어, 1천원 버스(사진)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19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구례여객운수와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천원 버스 단일요금제는 기본요금 1천원만 지불하면 거리에 관계 없이 구례여객운수가 운영하는 시내·외(남원, 경남 하동 포함) 전체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성인 1천원, 중·고생 800원, 초·중·고생 500원의 단일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현재 구례군 농촌버스는 기본요금 1천300원에 운행거리 10km 초과 시 km당 116.14원의 초과 운임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1천원만 지불하면 전 구간



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구례군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지역인 농촌주민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도입했으며 오지마을 주민과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완화해 지역별 잠재해 있는 복지 불균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례=이성구 기자

무안군, 농산물 2천700t 해외 수출 결실

지난해 대비 375% 증가

무안군이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 2천700t의 해외수출 결실을 맺었다.

무안군은 19일 “11월 말 기준 양파와 단호박 등 8개 품목 2천727t에 대해 수출액 17억9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농산물 수출량 404t과 비교해 보면 375% 증가한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를 새롭게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안군은 올해 초부터 양파 과잉 생산을 우려해 해외 수출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해외 수출로 양파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자체사업 8억8천만원, 보조사업 1억5천만원 등 총 10억300만원의 수출 물류비를 긴급 확보해 농협과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가 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대 수출시장은 동남아시아로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이 뒤를 이었다.

이들 시장에서 농산물 2천600t을 수출해 전체 물량의 95%를 차지했고 그 외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27t을 수출했다.

수출 품목도 ▲양파 2천143t ▲배추 213t ▲양파 209t ▲버섯 80t 등 채소류부터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이 수출돼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성과도 이었다.

특히 2천143t을 수출한 양파의 판매량은 최근 양파 가격 폭락에 따른 산지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무안군과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힘을 합친 결과다.

양파 소비 촉진운동의 공감대가 형성돼 적극적인 판매활동이 이뤄졌으며 전남서남부채소농협(576t), 평화영농조합(1천447t) 등이 동남아시아로 양파를 수출해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판로 개척에 앞장섰다.

군은 지속적인 농산물 수출을 위해 농가와 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연말까지 수출량 3천t 이상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안=전영태 기자

고흥군, 골목길 ‘반딧불 솔라 안심등’ 설치

주민 보행 편의·범죄예방 효과

고흥군은 좁고 어두운 데도 여건 상 보안등을 설치할 수 없어 통행 불편이 있는 골목길을 대상으로 ‘반딧불 솔라 안심등’을 설치했다.

‘솔라 안심등’은 낮 동안 태양광을 충전시켜 저녁이 되면 자동으로 LED등이 켜지는 방식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는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제작됐다.

고흥군은 지난 16일 고흥읍 남계마을 회관에서 고흥동초등학교까지 400m 골목길 구간에 시범적으로 100개를 우선 설치했다.

마을 주민 김모씨는 “초·중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주요 골목길임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및 방범시설이 부족했다”며 “골목길이 환하게 밝아지니 불안감이 사라지고 과도하게 밝지 않아 빛 공해가 없어 매우 좋다”고 말했다. /고흥=신원기 기자

장성토지【급매】

광주에서 20분

(장성군청 ~ 장성댐사이)
장성호 개발예정
⇒ 국도도로 12m접(앞면30m)

평수 1,000평 매매시세 10억

↳ 급매가 6억원

(평수300평→급매가 2억원)

■ 전원주택,물류창고,사무실 투자적합

■추천물건

①장성을 용강리 국도변접합(760평)	→ 매매가8천5백만
②장성 야은리(계획관리)500평	→ 매매가4억7천만
③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6억5천만
④담양읍메타세퀘아도로점(1470평)	→ 매매가8억2천만
⑤광주서구서창(197평)시청에서20분거리	→ 매매가5억9천만

상가매매 (상무지구)

① 치평동 중심유통상가 6층[80평]
(유흥주점,카페,노래방적합)
-즉시입주가, 시설비없음
-콜롬버스영화관 바로 앞
-감정가시세 5억원
-매매가 2억5천만원

② 치평동상가 7층[60평]
-즉시입주가, 시설비없음
-전망최고
-감정가시세 3억원
-급 매 ⇒1억5천만원

■추천물건

① 광산구 첨단 쌍암동상가 10층 【24】 평
-매매가 7천8백만원
(임대완료 -보300, 월44만원)

② 용봉동 원룸 매매【룸15개, 주택1】
-매매가 6억9천만원

경매교육

【기초반 · 특수반】

① 기초 실전반 모집
(무료강의 병행)
◎기초이론+실전

② 중급 실전반
◎중급이론+실전

③ 고급 특수반 모집

이제 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지분,엔피엘)

※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

④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테디

⑤ 경매투자 연30%수익 가능

- 근저당 설정시 연20% 가능

010-6670-9800

010-6670-9800

010-4667-9820

CMYK